

2020 소나무 아카데미

프로젝트

자기소개서 질문지

소나무장학회

공익정신을 체화한 사회적 리더의 양성



Public
Interest (공익)
Networking (연대)
Empathy (공감)

환영의 말

공고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소나무 아카데미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공동체 Community 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소나무 장학회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16년 11월 장학회 독서모임 중 있었던 한 대화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대화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활력과 공부의 기쁨을 찾으러 '소나무'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허무해요. 진보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게 재밌긴 해서 몇 번은 하겠는데, 솔직히 제 실제 일상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사회정의는 직업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고민하고 보통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는 거 아닌가요?

속갓 정치의 영역에만 한정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윤리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에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자기이해가 타자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삶을 확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부분에 공감이 가요. 개인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어 이해하다보면 사회 수준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대부터 우리 인류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던 곳이 유니버시티였고, 아카데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학회도 공익실천을 제대로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유니버시티나 아카데미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 책에서 활사개공(活私開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요. 이 한자 뜻을 풀어보면, 개인(사)을 보호하고 살리는데(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공)를 연다(개)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개인을 무시하는 불균형이 있었어요. 이미 지나치게 개인에게 공동체의 도덕을 강요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을 도덕으로 짓누르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하고 생명력을 살려주는 역할을 짊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한국사회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홍변 한국사회가 개인의 권리의식이나 인권의식은 많이 신장된 반면에 공동체가 해야 하는 역할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나 합의가 되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공동체 경험은 이런 거 같아요. 한반도에서는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수준에서 한 번 붕괴했고, 이후 전쟁을 거치고 도시화를 겪으면서 지역수준에서 붕괴되어 왔어요.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굴러왔던 역사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다는 특징이 한국문화에는 분명히 있어요. 대신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개인이 힘이 강해져야 한다는 생존의식은 굉장히 강하고요.

라운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기업’이 도시에 있는 현대판 공동체 아닌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공동체요. 이렇게 본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른들이 혀를 꼰꼰 차며 말하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취업준비라는 게 공동체에 들어가려는 준비 같은 거니까. 말하고 보니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 청년들처럼 그야말로 열렬한 공동체주의자들도 없지 않을까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회사원,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뭔가 생존이 안 되고 ‘사람 구실’ 못 할 것 같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취업준비를 하는 거고요.

속갓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그 얘기에서 말한 공동체와 우리 장학회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 지금 라운이 말한 공동체는 ‘공포라는 수동적 감정 때문에 유지되는 공동체’예요. 취업준비를 하면 기쁨이 샘솟고 삶의 활력이 돋나요? 아니죠. 위기의식, 불안, 공포, 당위처럼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강제하거나 우리를 왜곡해서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보려는 공동체는 ‘기쁨이라는 능동적 감정 때문에 유지되는 공동체’예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쁨과 활력의 동기로 참여하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나누는 공동체요. 또 두번째로 기업도 공동체인데 하지만 완전히 영리를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공선’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는 공공선을 증가시키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홍변 그런데 그것도 특히 대한민국이 유독 심한 거예요. 사실 회사제도가 찬찬히 발달되었던 서유럽을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회사의 의미가 한국하고 달라요. 단순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협동조합이 나온 이유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우리의 주식회사는 순전히 영리 목적이죠. 취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직장 내에서 회사가 공적인 일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다들 거부감을 가질 걸요?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 아니냐고 반문할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업가 윤리가 현실 직장에서는 먹히질 않는 거죠. 헌법에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오는 거구. 그런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없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나오긴 힘들고 기업가 윤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사회에 철학적 기반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한 거고요.

속갓 정리하자면 기업 같은 영리-공동체를 논외로 한다면, 도시에서는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나요. 일단 도시는 지역기반의 공동체가 없죠. 다만 요즘은 그런 시도를 성미산 마을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 되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안학교까지는 있는데 대안대학교와 대안직장이 없다는 문제요. 대학에 들어가고 직업을 가질 비전까지 만들진 못한 거죠. 대안학교에 대안대학에 대안직업까지 있어야 도시판 ‘대안적 에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운 듣고 보니 제가 학교에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동아리도 하나 이끌고 있고, 대중 인문학 독서모임도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사교 모임이고 친목 모임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거든요. 주기적으로 가끔 만나서 놀거나 가끔 만나서 책 읽는 얘기하는 거, 딱 거기까지. 내 삶의 비전을 세우는데 그 모임들이 영향을 준다거나, 그 모임과 관련해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세워본다거나, 이렇게 내 삶의 중요한 핵심은 못 건들죠 당연히.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들도 아니고요. 같이 놀거나 교양 쌓으려고 만들어진 모임들이니까.

속갓 그래서 우리 장학회가 도시에서도 공동체를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영리를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도 아니고, 학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도 아니면서, 그럼에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한 번 실험해보자는 거예요.

라운 아니 근데 그런 걸 뭘로 만들어요.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매일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학벌처럼 스펙이 된다가나 상징자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워라벨 때문에 취업준비 하는 시간 빼면 힘들어서 여가시간엔 쉬느라 바쁘다고요. 쉬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풀러 놀러 가던가. 청년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지금 제 입장에서 현실성 없는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얘기로 들려요.

속갓 오히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몽상적이라고 들리는 건 아직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부’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요. 동양에서는 철학이 전쟁통이라는 극악한 현실에서 출발했어요. 서양처럼 등따신 사람들만 철학을 했던 게 아니었다고. 공자 맹자 전부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고 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철학과 실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내가 말하는 ‘공부’가 그겁니다. 철학의 수준에서 하는 실천 공부, 실천과 완전히 붙어있는 철학 공부. 고대 동양에선 제자백가가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지금 여기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하고 성공회대에서 NGO 학을 하면서 “이게 뭘까? 내가 왜 남을 도우려고 하지?” 갑자기 정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나를 해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시간이 가다보면, 왜? 주변에 나랑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바보나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철학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는 이걸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나에게 이 행동을 설명할 논리가 없으면 나중에 쉽게 변질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철학이 없으면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뭔가를 더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철학 공부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계속 입이 닳도록 말하는 거였어요.

라운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아요. 인생 공부를 중심으로 공동체(家)를 모아보자는 말이군요? 동양철학 고전에 나오는 도가, 유가, 묵가, 농가, 법가 뭐 이런 것처럼? 음... 이런 한 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속갓 신영복 선생의 <CEO를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도 처음엔 이런 꿈을 꾸고 만든 것이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공동체 형성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그냥 공부만 하다가 각자의 원래 인생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찾아보면 공부 모임이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모임들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는 발전하지 못 하는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가령 대학교가 그렇잖아요. 대학의 역사를 보면 처음엔 학문공동체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학이 한국사회에서 학문공동체로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갈수록 미흡해지고 있다고 봐요.

라운 저도 대학생이긴 한데 대학에 졸업장 따고 공부하러 간 거지 공동체다 뭐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확 끌리진 않아요. 생전 써보지 않은 단어가 그런지 거부감도 좀 들었어요. 물론 이런 그냥 ‘워딩’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느낌들이고 제가 아직 무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 이 소나무 장학회가 한국사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01. 첫번째 질문

변화

첫 번째 질문. 현실성 있고 지혜롭게 변화를 원할 수 있는가?

다음 4편의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세요.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지원자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시될 제시문들은 지원자의 사유와 성찰을 돕기 위한 촉매제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장학회의 입장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문(가) 스탠포드 대학원이 75명의 비즈니스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리더가 개발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나타났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핵심요소 역시 자기인식이다. 자기를 인식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들'의 욕구와 상처, 고통과 열망을 읽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독립된 고립무원의 개체가 아니라 타인과 깊이 연루되어 그들의 책임을 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가치, 믿음,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숨은 가정을 들추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열망, 내적 동기, 재능,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할 때 자신의 이상과 책무를 즐겁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이로부터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묻고 **목적-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삶을 살아가는 창조적 역할로서 자기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인식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리더십 훈련에서 자기인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과 동기의 부족이다.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회적 잣대나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자기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다면 **현재의 만족, 사회적 성취, 생존의 문제가 자아를 대체하고 자아 감각을 소멸시킨다.**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다. 자신이 이론 성취, 부, 권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한계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왜곡된 자아 이미지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인상관리다. 타인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자기를 **과시적으로 드러내고, 본래의 자신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기 안에 분열을 조장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제의 자신과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이 분간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짓된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네 번째는 자기기만이다. **고통, 불안, 수치심 등을 피하고자**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필터링하면서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다. **부정적 피드백은 은폐하거나 거부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확대 수용하는 것이다. **(경영학자 이창준, 「진정성 리더십」 칼럼 중에서 인용함)**

제시문(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런 공부는 텍스트에 밑줄 치고 암기하면서 하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사유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공부는 생명의 존재방식이니까요. 지난 여름 폭풍우 때 달팽이도 나뭇잎 위에서 생존을 위해 엄청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공부가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까지 와야 한다는 건 공부 대상에 대한 공감과 애정으로 나아가 진정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처음 5~6년 감옥살이할 때 함께 징역 사는 술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화하거나 분석하곤 했지요. 그러다 차츰 '아, 나도 저 사람 부모 같은 사람 만나 저런 인생 역정을 거쳤으면 똑같은 죄명으로 감옥에 앉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 대상화하고 분석하는 근대적 인식들이 조금씩 깨져나갔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과의 공감과 애정, 이런 게 생기면서 내 공부가 가슴까지 온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발전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담론>에도 썼듯이 감옥에서 집을 그리는데, **책을 읽으며 머리로만 공부했던** 나는 지붕부터 그려나간 반면, 같이

정역을 살았던 노인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 그대로** 주춧돌부터 그리더군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인더러 '당신은 주춧돌부터 그리세요, 나는 지붕부터 그립시다' 하면서 '우리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을 승인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럴 듯 한데,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구 근대사회가 도달한 최고의 윤리가 공존과 톨레랑스인데, 톨레랑스에는 (나는 변화하지 않겠다) 강자의 패권적 사고가 스며 있습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기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이란 것은 자기 변화의 교본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공부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생각의 높이를 고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공부에는 당대 사회가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되지요. 단순히 배우기만 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적, 사회적 실천과 연결이 되어야 진정한 공부라는 것이지요. 공부는 절대 실생활의 실용성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당송 팔대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한유라는 사람이 '성인은 무상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인은 정해진 스승이 없다, 성인,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스승이라는 말이지요.**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반면교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유의 말은 결국 '정해진 학교는 없다, 학교는 도처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부란 이런 것이다' 하는 데 대한 틀에 박힌 관념을 걷어내면** 사람살이 모든 게 공부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학교구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집단 지성이 한결 중요하지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하나의 종합적인 지혜를 만들어 가는 것, 함께 공부하는 평생학습의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함께 공부하고 더불어 학습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벗이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단 지성이 표출되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사표師表가 되는 것이지요. 중국 명나라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친구가 되지 못한다". (사상이 신영복,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중에서 인용함)**

제시문(다)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관계의 단절 혹은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사회라는 말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을 떠들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단절을 숙고할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당면한 것은 외로움과 같은 사적인 관계의 단절이기 보다도,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부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남도 듣고 **'참조'**하면 좋을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 또한 전승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참조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의 참조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적인 **'존재감'**을 획득하고 공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공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고 공부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내가 참조할 만한 그룹(공동체)이 해체됨과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참조점이 되어 조언을 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지극히 사스럽기만한 관계, 혹은 참조할만한 가치로운 차이가 제거된 채 동일성으로 등쳐진 관계 뿐이다.**

다르게 말해, 사람과의 만남은 자동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만남을 거치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족'**에 이르게 된다. 타자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세계의 협소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즐거움만이 즐거움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안주한다. 즉, 나르시시즘이다. 타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고 그 만남을 **'구경'**으로 전환하며 자신이 구축해놓고 확신하는 세계에 만족하고 안도할 때 사람과의 만남은 나르시시즘으로 포획된다.

그러나 타자는 나에게 내 세계의 협소함을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내 세계의 안온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사실 한국의 교육은 타자,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나르시시즘으로 귀결시키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학생들에게 '봉사'를 강제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학교가 기대하는 효과란 뻔하다. 세계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한 다음, 그들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지금까지의 나태한 삶을 반성하고 좀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케 하는 것이 그 최대치인 것이다. **이렇듯 나르시시즘이라는 삶의 태도에서 타자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최대치는 '동감-연민'에 불과하다.** 이런 감정이입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 **내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긴 하지만 그 바닥에는 나와 그 사람의 처지는 다르고 <공통된 것 the common>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나의 현실과 그의 현실에 공통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인 감정이입과 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 각자의 현실로 돌아간다. 대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며 느끼는 연민은 내 자리[현실]는 저렇지 않다는 안도감과 쌍을 이룬다. 연민의 결과가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다른 국면에서 우리가 타자를 만나는 방식을 성찰해보자. 철학자 김영민은 친구란 "듣지 않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구태여 공들여 듣지 않아도 다 아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친구란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정서적 결속감, 그 결속감이 퇴화하면서 생긴 반反-성찰적 습관, 그런 성찰하지 않는 습관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양식에 대한 퇴폐적이고 노스텔지어적 추인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관계"이다. 친구 사이에서는 너무 쉽게 공통의 침체를 도덕이라 부르고, 공동의 나태를 평화라 부르며, 공동의 타락을 질서하고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듣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다 알아서, 바로 그 앞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대화**를 종종 본다. 당장 부모와 자식 간의 말다툼을 보라.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려 하면 자식은 곧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잘 알거든. 그러니 내 말부터 들어봐'라며 자기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 곧 엄마도 자식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나도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러니 엄마 말을 들어'라고 말한다. 듣지 않고도 서로 다 안다고 주장한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진짜 마음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은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고 생각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또다른 나인줄 알았던 친구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깊이에서 질문해야 한다. 누구에게 말을 걸 것인가? 나는 "한 사람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참조사항이 되면서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엮어내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강조해왔다. 이 관계 단절은 '경험의 전승'을 통해 존속해온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동그렇게 둘러앉아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정치 또한 불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개개인의 삶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서사가 아니라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연속이 아닌 나열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성장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성장이란 그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인간의 성장이란 이전에 한 경험이 앞으로 올 경험의 참조지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자본주의 초기에 농노가 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오히려 '굶어죽을 자유'를 의미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하는 서사적 주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관계체로서 사회가 붕괴함과 동시에 개인도 뒤따라 붕괴하는 역설을 맞이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해방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자유"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참조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공들이는 일마저도 이내 누구도 참조할 리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는 당연한 예감. 삶의 허망함이란 이처럼 경험이 쓰레기가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사회학자 엄기호, 『단속 사회』 중에서 편집 인용함)**

제시문(라-1) 사실 누군가의 취향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일치하는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늘 다른 취향과 다른 감각, 즉 차이에 매혹된다. 그러나 차이 자체에 매혹되

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차이, 나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차이, 나보다 더 고귀한 인간이라는 차이, 이런 차이에 매혹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에게 침입해 들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변화하고 여기서 배움이 일어난다.

바야흐로 취향의 시대다. 민족이나 이념 같은 거대한 것들이 퇴장한 자리를 이제 취향이 차지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가장 사적인 범주"인 취향의 영역으로 환원된 사회에서 우리는 산다. 여기서는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라는 언명이 가장 강력한 도덕으로서 작동한다. 취향을 존중하라는 건 "내가 뭘 좋아하든 알가알 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가령 페미니즘 같은 이념에는 얼마든 태클을 걸 수 있지만 취향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모든 건 각자의 취향일 뿐이니, 판단하려 들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고, 공연히 싸우려 들지 말지어다. 아니, 사실은 취향을 말하는 순간 갈등 자체가 성립될 기반을 잃는다.** 취향에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취향'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다른 무리로부터 구별지음으로써 나 자신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취향엔 특별해지고 싶은 인정투쟁이 섞여 있다.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그러나 사실 취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에 대해 (내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의 취향은 계속되는 재평가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확실히 **'취존'이란 세상에 대한 나의 평가를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취존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낯선 차이들'이 침입해서 야기할 혼란과 불쾌가 견디기 버거운 것이다. 그래서 취존이라는 도덕 명령으로 자기를 방어하며 안전한 정체성과 인정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취향이 침해당해서는 안 될 소중한 정체성인가? 나는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취향이 침해당하거나 침입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취향을 존중하되 **인간의 고양高揚과 변화를 옹호한다면,** "판단하지 마! 인정해 줘!"라고 말하기 보단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가르쳐 줘!", "개입하고 간섭하고 싶어!", "존중하고 싸우자!". (공부하는 사람 정건화, 『청년, 니체를 만나다』 중에서 인용함)

제시문(라-2) 철학은 내 취향을 설득력이 있는, 즉 정당한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는 일이다.

(철학자 김영건, 『변명과 취향』 중에서 인용함)

질문1.

소나무 아카데미는 공익 정신을 체화한 리더 양성을 목적하는 대안적 장학-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목표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자께서는 자기교육 즉 변화를 향한 최소한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지원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상의 맥락에서 질문합니다. 지원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자기자신(또는 자기인생)의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술한 다음, 그렇게 변화하고 싶은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고 정밀하게 논술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 변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 부분은 추후 소나무 공식 블로그에 올라올 교육 프로그램 세부 설명을 잘 검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2. 두번째 질문

관계

두 번째 질문. 인간관계로부터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다음 4편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세요.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지원자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시될 제시문들은 지원자의 사유와 성찰을 돕기 위한 촉매제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장학회의 입장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문(가-1)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래서 어딘지 괴기스러워 보인다. 흔히 청년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개 절망과 포기로 수렴된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로 인해 우울, 좌절, 증오, 혐오 같은 현상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가 늘 문제시된다. 그런데 정작 청년세대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SNS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그곳은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하다. 청년세대에 대한 담론과 인스타그램의 간극은 마치 매트릭스의 밖과 안처럼 극명하다.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 실업률은 거의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도, 매년 해외 여행객은 급증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절대다수가 20, 30대라고 한다. 이런 통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다른 모든 건 포기하더라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가치 부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한 이미지들에 노출된다. 평생 다녀도 모자랄 것 같은 무수한 해외여행지, 수영장이 있는 아름다운 호텔, 분위기 있는 어느 카페에 대한 이미지들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더군다나 그런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조금' 무리한다면 도달할 수 있다. 1년 정도를 약삭같이 모으면 해외여행, 특급호텔에서의 하룻밤 등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를 견뎌내면, 몇 만원쯤 하는 핫플레이스의 파스타를 먹는 것도 어렵지 않다. 조금 다른 경우로는, 중고 소형차부터 운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년 할부를 해서라도 외제차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 같은 게 있겠다. 아니면 명품 시계나 가방 정도는 무리해서라도 구입하고, 특히 당장 입을 수 있는 패션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아낌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즉각적인 소비를 통해, 그러한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에 실제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걸 의미한다.

가장 우울할 때는 언제일까. 내 삶에 어떠한 화려한 이미지도 없는데, 가까운 친구들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이 온갖 이미지들로 치장되어 있는 걸 볼 때일 것이다. 제주도, 일본, 동남아, 유럽의 풍경 그리고 이태원, 연남동, 청담동 따위의 핫한 카페, 그리고 문어다리가 올라갔거나 딱새우로 치장된 한끼 몇 만원쯤 하는 음식 사진, 같은 것들을 볼 때, 급속도로 우울한 마음이 들고, 자신도 어서 그러한 '이미지'에 속하길 바라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감각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이미지에 제때 제때 도달해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고,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감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과거 세대들이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장가가야 하는데, 아이 낳아야 하는데.'**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세대들은 **'나도 저기 가 봐야 하는데, 저걸 가져야 하는데.'** 같은 이미지의 욕망을 느끼는 것이다. 타인이 속해 있는 화려한 행복의 이미지, 특히, 소비 위에 눌러 앉은 그 현란함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그런 식의 욕망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을까? 여기에는 단순히 미디어의 발달, 높은

부동산값, 양육비나 사교육비 같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그 '상향 이미지'로의 욕망이 있고, 그 이미지는 소용돌이처럼, 개미지옥처럼, 한 가운데로 수렴하는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이미지의 동일성'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 이미지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우울감이 도래하고, 그 우울감은 죽음과 맞닿을 정도의 어떤 절박함을 주는 것이다.** 소비가 이 정도의 감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소비행위에는 "소비가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준다"는 신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곧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무엇이 된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다니는 카페, 우리가 갔다 온 적 있는 여행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곧 나 자신을 상징하며, 나의 존재를 이룬다. (몇몇 진보주의자들이나 체제 비판자들이 이런 우리 세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도 그런 비판 담론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 기제는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우리는 길을 가다가 나와 완전히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딘지도망가고 싶은 창피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한다. 내가 믿었던 나의 정체성이 사실 전혀 고유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폭로 앞에서 어딘지 몸들 바를 모르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켜켜이 쌓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소비는 특정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기도 한다. 특정 브랜드나 어떤 가치가 담긴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동류의식 같은 게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멋진 걸 소비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소비는 다른 소비에 비해 우월하고 의미가 있다, 라고 여기는 일군의 소비집단이 제법 단단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정체성 소비'는 소비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히려 실용성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그 물품 자체의 있는 그대로인 현실적 가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소비가 주는 자아[에고] 자체에 대한 느낌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통해서 존재감을 얻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생각해 왔다. 나는 소비에서 좀처럼 그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 내가 소비하거나 걸치는 것이 나를 상징해준다고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건 무의미하다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일종의 허영이랄까 혹은 스스로 속이 비고 걸만 화려한 어떤 물건처럼 생각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 성향은 꽤나 강했어서 오히려 외면의 상징성에 집착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내면의 허술함을 비례적으로 드러낸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속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그런 식의 허구적이고 외면적인 상징성에서 무언가를 찾으리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 혹은 태도는 꽤 오래 이어졌는데, **대략 이십대 후반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브랜드를 따지며 거기에 나의 존재성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일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내면의 쌓아올림과 외면의 소비가 꼭 대조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면성의 자아에 충분히 중심을 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부여되는 상징성들도 어느 정도 챙기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물론, 그것은 뭐랄까, 내게는 나의 실제 가치가 평가절하 당하지 않길 바라는 정도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었다. 내가 너무 일반적인 기준에서 형편없는 외면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의 내면도 누군가에게는 평가절하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다. 외면성이 나의 내면성을 넘어서서까지 나를 드높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적당한 선에서는 나의 존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청년 작가 정지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중에서 편집 인용함)**

제시문(가-2) 영화 <1987>을 보고 많이 울었다. 청년 박종철이 죽은 겨울, 청년 이한열이 죽은 여름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화를 보면서 **정작 당시에는 슬픔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그렇다면 쉽게 느껴지진 않을 지금 이 시대의 슬픔은 무엇일까?) 영화관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다. 지금 대학가에는 최루탄도 화염병도, 짬새도 백골단도, 물고문도 전기고문도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학가의 청년들은 당당한가? 자유로운가? 그래야 맞지 않은가! 나를 포함해 1987년

세대는 분명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지성과 야성,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확신 했었으니까. 하지만 공권력의 억압과 압제는 없어도 여전히 청춘은 서럽다. 30년 전에는 지독한 폭압이 있었어도 적어도 거기에 저항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공권력의 억압에서 자본의 폭주로의 대전환. 청년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항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다. 소비의 주체가 되려면? 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탄생한 '꿈' 담론은 꿈의 구현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더 많은 화폐,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지금 청춘들이 말하는 "꿈"은 상당부분 IMF 이후에 산출된 시대적 망상의 산물이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담론이 현실화되어 그런 식의 꿈들이 전부 실현된다면 아마 지구가 인간의 소비를 견디지 못해 폭발하고 말 것이다.

1987년 세대에게 (시대적 소명을 자기 인생에 오버랩시킨 것들을 제외한다면) 꿈이란 사실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엔 어떤 목표가 "꿈"이라고 당당하게 불리기 위해선 무언가 빛나고 화려한 '성공이나 출세'에 가까운 무엇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이라고 말하기엔 어딘지 부족하고 한심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출세를 수반하는 꿈은 (어떤 그럴듯한 좋은 말들로 포장해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90%이상 화폐의 양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가질 처지가 안 되거나 못 되는 다른 청춘들은 죄다 "꿈도 없는 패배자"들이 되어버린다. "화폐의 양과 연동되어 있는 꿈" 담론에 짓눌려 **(나는 꿈도 없는 인간이라거나 반대로 꿈을 쫓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식의) 망상 속에서 자기를 괴롭힌다.** 만약 청춘들이 꿈이나 '성공'이라는 특수한 형식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이치를 알아차릴 도리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은 청춘들에게 꿈 담론이 먹혀 들지 않는다. 꿈을 '열정'으로 포장하던 시대도 지났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방향이 시작된 것이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제 뭘 하고 살아가지?

방탄소년단이 인터뷰에서 말하더라. "난 꿈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 꿈을 전부 다 이뤘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외롭고 지치는 시기인 것 같다. 우리 항상 행복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왔는데, 뭔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친구,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롭더라. **불안함과 외로움은 평생 함께 하는 것 같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큰 의미를 두는데 평생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나 또한 불안하고 당신 또한 그러하니 같이 찾고 공부해봅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참 진솔하고 리얼한 말이다.

생명이란 네트워킹이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계의 그물망에 접속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꿈이나 성공, 그게 아니라면 생존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취업준비, 바로 이러한 청춘들의 움직임에는 관계에 대한 성찰과 추구가 생략되어 있다. 다른 길을 모색해볼 수는 없는가?

그러기 위해선 삶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삶은 관계다. 살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삶이다. 나를 둘러싼 관계를 점검해보라. 가장 먼저 가족, 삶의 토대이자 베이스캠프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착하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삶이라는 현장은 베이스캠프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은 연애! 이걸 강렬하지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소유와 집착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화폐와 긴밀히 오버랩된다. 이 관계에만 올인하면 존재는 한없이 작아진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정을 수반해야 한다.**

우정이란? 독점적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네트워크! 청년이 전념해야 하는 윤리적 영역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정은 취향이나 기질이 아니다. 절차탁마해야 하는 '덕목'이다. 덕목이라는 것은 그것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정과 지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스승이면서 친구이고, 친구이면서 스승인 **사우(師友)**!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관계의 최고 경지다.

조선의 선비 연암 박지원의 철학을 우도(友道) 즉 "우정의 도리"라고 부른다. 연암은 말한다. "시장에서는 이익으로써 사귀고, 면전에서서는 아첨으로써 사귀는 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세 번

부탁을 거절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목은 원한이 있다 해도 세 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해지기 마련이야. 그러므로 이익으로써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써 사귀면 오래갈 수가 없지. 대단한 사귀는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고, 두터운 벼는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된다네. **다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귀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벼를 삼으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도의로써 사람과 사귀는 것일세.**"

관계란 결코 '인맥'쌓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맥은 결국 돈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관계는 화폐보다 우선한다. 인맥을 쌓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귀어 인복을 쌓아야 한다. 인맥은 불안과 외로움을 증폭시키지만 인복은 그 불안과 외로움을 치유한다.

자본에 포획된 꿈은 망상이고 환상이라고 했다. 관념적으로 상상하는 환상과 망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인간의 현실에** 적합한 꿈, 중국에는 배신을 하듯 인간을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지 않을 꿈, 정말로 인간에게 유익한 꿈이 있다면, 단 하나, 이것이다. **사우師友를 만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일단 존재의 무게중심을 우정이라는 축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의 배치와 욕망의 흐름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엔 '친구'를 찾아,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나면 된다. 절대 잊지 말자. 자의식[에고이즘]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 공감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고전 국문학자 고미숙,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중에서 편집 인용함)

제시문(나) 인생에서 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힘들어 하고, 갈등을 통해 많은 관계를 잃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틴 부버의 철학을 따라 상대를 '나와 그것[물건]'이 아닌 '나와 너[인격]'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교육 덕분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 때문일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무의식적 전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물건'의 고장이라든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급한 몸과 마음의 질병이라면 해결책을 찾는 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물건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라면 어떻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대화를 단절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일 때가 가장 어렵다. 관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의 나쁜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 선불리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상과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문제는 더 꼬인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나뻐는데,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고 해서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 넘어가버리는 것도 나중에 더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빠른 해결책은 모두 상대와 나 자신을 대상화(물건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다. 무고한 이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대상화하더니, 이제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대상화하고, 빠르고 대충 처리해야 할 일로 대상화를 했다. 당연히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할 감정이 있다. 내 의지와 목표대로 상대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거나 계몽하겠다(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상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대하는 끔찍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사실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관계는 내 의지대로 휘두를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가 불편해진 상대에게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그것을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해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통은 건디는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살다가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할 가장 괜찮은 방법은 (고통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삶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당당하게 직시하는 힘, 내성을 키우는 것이다. 고통을 견디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아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이 아닐까. 인간의 가장 큰 악은 우주와 자연 앞에 겸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는 그룹 카운슬링의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디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갈등을 했던 상대와 마주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딘다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소통을 노력한 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은 갈등 자체가 부담스러워 회피한다. 혹은 갈등을 했다가 관계가 아예 단절될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갈등을 피한다. 잠재된 갈등이 회피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에 도전하고 갈등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갈등에 도전하게 되더라도 '말싸움 잘하고 입 잘 터는 놈이 이긴다'는 식의 잘못된 신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흔하다. 상대의 감정을 알려고 하지 않고 대신 서둘러 상대의 잘못부터 지적하는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갈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애드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서로가 알지 못했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와 갈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즉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틀렸고, 상대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대를 위해 저주라는 것이나 무언가를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갈등은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은 법원에서 따질 문제이지, 관계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이나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예 갈등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틀리고 싶지 않아 하며, 지고 싶지 않아 하고, 판단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의 행동에 동의(동참)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은 입장에서는 상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싶기 때문에, 상대가 반드시 의도[목적]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대의 마음에 대한 적합한 이해는 아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변화를 다짐했다면 그 변화는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관계 회복 없이 그저 혼자 행복하거나 즐겁다면 제대로 된 변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와 무관한 힐링이나 치유는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덮어두는 미봉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 이제 변할거야!"라고 다짐할 때 혼자만의 변화를 다짐하지 않는가? 관계 속에서 변하려고 하지 않고 관계와 떨어져 나 혼자를 변화시키려고 해오지 않았던가.** 우리는 그동안 관계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 외면한 채로, 혼자만 마음을 정리해왔다. 그리고 그런 식의 고립된 마음정리를 변화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더 이상 마음에 관한 작업을 '혼자서' 하지 말자. 당당하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함께' 지지고 싸우고 북아보자. **이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갈등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심리학자 강현식, 「그룹 카운슬링의 원리와 목표」에 관한 칼럼들을 참고하여 인용 및 작성함)**

제시문(다-1) 포르노는 에로스의 적수다. 포르노는 성애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포르노가 음란한 것은 과도한 섹스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섹스[성애]가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애를 위협하는 것은 쾌락을 적대시하며 섹스를 뭔가 "더러운 것"처럼 피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이성이 아니다. 이 맥락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섹스만이 포르노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실제 섹스마저도 (섹스 상대를 사물화하는 와중에서) 포르노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섹시함은 증식되어야 하는 매력자본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포르노적 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에로스 윤리는 타자를 경제적 및 쾌락적 수단으로 사물화하는 세속화에 대한 저항이다. 오늘날 나르시시즘적 자아과잉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지배[억압]하거나 다룰 수 없는 타자의 이질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지금의 사랑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신 욕구와 만족과 즐거움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환원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해타산이 계산 및 예측되지 않는다면, 미지의 미래를 향해 이웃 타자와 관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즐길 수 있는 소비의 공식에 따라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즐길 수 없거나 '재미'가 없는 모든 부정성과 모든 부정적 감정들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회피'된다. 성숙한 고통이나 성장을 향한 열정은 '안락'이라는 감정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순간의 흥분"에게 자리를 내준다. 속성 섹스의 시대, 즉흥적 섹스, 긴장 해소를 위한 섹스가 가능한 시대에는 성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부정성, 모든 고통[불안이나 긴장], 모든 열정을 상실한다. 부정성과 고통과 열정의 완전한 부재로 인해 오늘날 사랑은 소비와 쾌락주의적 전략의 대상으로 쪼그라든다. 즉, "타자를 향한 갈망이 (안락과 안정이라는) 동일성을 향한 집착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성 속에서 편안하게 어떤 불안도 시비도 없이 내재하는 것, 편리하고 쾌적하게 늘어져 있는 감정상태이다. (가부장적 규범성과 억압을 위반하며 출발했던 자유연애의 첫 이념과는 상이하게도) **오늘날 사랑에는 어떠한 규범성의 위반도 없고, 그래서 억압으로부터의 도약이나 성장도 없다.**

이렇듯 '좋은 삶'은 자본주의와 소비의 목표가 아니다. 축적과 경제성장을 향한 자본주의의 강박은 곧바로 소비주체에겐 죽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에서 죽음이란 절대적 손실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순수한 영리 행위는 '좋은 삶'이 아니라 단순히 '삶 자체'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부를 쓴다던가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삶을 돌보려는 노력이 꼭 좋은 삶을 위한 노력은 아니다. 자본과 생산의 운동은 '좋은 삶'을 목표로 하는 이념을 떨쳐버림으로써 무한한 가속화 과정에 빠진다. "방향을 상실한 운동은 극단적으로 가속화된다. 이로써 자본주의에 완전히 예측된 인간은 노골적이고 파렴치해진다."

자본주의에 완전히 예측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손익분기점으로 평가하는 '자기-경영자'인 사회에서는 "생존의 경제"가 지배한다. 자아 동일성을 떠나지 못하는 나르시즘적 충동과 자기를 '경영'해야 하는 성과주체의 성과충동이 전혀 억제되지 않는 사회 질서에 의해 내면의 욕망이 구조화된 삶이란 곧 오직 "불연속성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지배하는 수동적인 삶이다. 그러한 삶이란 노예의 삶일 뿐이다. 생존하는 자는 살아 있기에는 이미 너무 죽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나기에는 너무 살고 싶어하는 산송장과 비슷한 존재다. 현대의 노예는 자율성과 자유보다, 물신화된 건강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자. **지성의 힘과 더불어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정신의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쳐 파멸로부터 온전히 생존을 보존하려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을 감내하고 바로 죽음 속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부단히 생성 및 유지해나가는 삶"이 그것이다. 지성과 정신의 힘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회피하고 도외시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평화로운 안정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결'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성과 정신의 힘이다. 죽음과 같은 극도의 부정성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들어가 이를 자기 안에 끌어안는 것, 죽음의 운명이 찾아와 생리운동이 정지하기 이전에 미리 앞질러가 죽어볼 수 있고, "죽을 때에 맞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 이럼으로써 (안락한 동일성 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대신) **삶의 완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신의 삶"이다. (미학자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을 참고하여 편집 작성함)**

제시문(다-2) 이 추운 겨울, 선생님은 꽃처럼 바람처럼 훌쩍 가버렸습니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미련없이 스스로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떠난 이 땅에서 장차 우리는 앞서기가 아닌 뼈대를 직시할 줄 알고, '석과불식'(碩果不食), 즉 씨 과일은 남겨두어 내년의 풍성한 과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정신으로 미래 시대를 키워낼 수 있는 '스승'을 다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강철같이 단단

하면서도 물처럼 부드럽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어른’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혁명당, 전향공작, 사상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 그리고 20년의 감옥 유포는 분단 냉전 시대를 숨죽이고 살아온 한국의 보통사람들의 일상과는 저 먼 곳에 있는 참으로 무거운 과거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체제-비판적인 청년학생 조직의 리더였던 선생님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통혁당 핵심으로서 조직도 내에 그려 넣었고, 선생님은 20세기 다른 어떤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하고 값비싼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 무서운 죄목으로 사형수가 된 순간 이웃과 세상은 선생님을 기억에서 지우고 선생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완강히 부인했으며, 88년 특사로 풀려난 이후에도 과거의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피했습니다.

50의 중년이 되어서야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옥중 일기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명명 구절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에서 보낸 3,40대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지만, 서화작가로서, 문필가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 토해낸 나지막하지만 강한 목소리는 고단한 대중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경제학도가 ‘대역죄인’으로 몰려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또 앞을 기약할 수 없는 무기수가 되었을 때, 선생님의 느낀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고 또 다른 10년을 거의 채울 나이가 되어, 20대 말의 청춘이 40대 말의 중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가졌을 참담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선생님은 이 혹독한 시절을 거치면서 개념과 이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회과학자에서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이끌어내는 사상가로 거듭났습니다. 선생님께 감옥은 ‘머리보다는 가슴을’, ‘가슴보다는 발로 여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출옥 후에도 청춘 20년을 앗아간 독재정권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분노와 적의 대신에 촌철살인의 농담과 비유로 세상을 비판했고, ‘유머로써’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불모의 냉전 분단체제의 희생자가 되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펼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와 서화에 감명과 위로를 받고 마음속으로 선생님을 흠모해온 수백만의 동시대의 한국인들이 지금 선생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조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죽어도 독자는 끊임없이 탄생한다”는 선생님의 유연처럼, **수십, 수백만의 사람이 선생님의 말과 서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었고, ‘더불어 숲’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존재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를 함께 시작한 일, 그리고 같은 사회과학부의 교수로 보낼 수 있었던 20여년의 시간이 저에는 더 없는 행운이었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남겨놓은 말들을 새기면서 남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담론을 만들고 주체를 길러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고문 없고 사상탄압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사회학자 김동춘, 「분단과 전쟁체제의 저항과 희생 - 신영복 선생님 추도문」 중에서 인용함)

제시문(라-1) 철학과 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철학자 마르크스는 “개에게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의 본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개에게 개의 본성이 거부하는 먹이, 가령 초콜릿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개는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는 생명체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미치거나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인 사람도 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 본성을 알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지적처럼, **인간 본성을 알아야만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하고[선] 무엇이 해로운가[악]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한 의미의 탐욕과 이기심이 인간 본성이라

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겠지만, 만약 인간 본성이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멸종할 것이다. 결국 인간 본성을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사람에게 이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전한 사회'라고 부르는데 건전한 사회란 곧 **"인간 본성의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첫 과제는 인간 본성이 무엇이며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 다음 과제는 '인간의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 즉 '객관적인 욕구'와 일치하는 사회를 건축하는 일이다. (심리학자 김태형, 『싸우는 심리학』 중에서 편집 인용함)

제시문(라-2) (만약 어떤 생명체가 자기 신체를 해치는 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멸종하거나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본성은 자기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려는 경향성이자 노력이다. 그러나 생명체의 심리나 행동은 결코 본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본성만으로 어떤 심리를 갖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그 외부 환경이 생명체에게 해로운 무엇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생명체의 심리를 왜곡하여 그 생명체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조장한다면, 그 생명체는 자신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충동에 휩싸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생명체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인간에 포함되는 나에게 과연 무엇이 진실로 이로운 것인지를 알려면, 나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인간 종의 욕망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사적인 욕망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욕망일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내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강제하거나 나를 왜곡하여 발생시킨 욕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서 인류의 객관적[혹은 간주관적] 욕망과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수적인 것에 대한 제1차적 욕망이 그 어떤 '사치'재나 '과시'재에 대한 충동적 욕망으로 발전하고 나면 그 위에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지향적 욕망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을 하게 된다. 즉 거의 자기충족적으로 보이는 자폐적 욕망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통속적인 수준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특수하고 병리적인 맥락에 한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될 경우 자기를 자기 안에 완전히 가두는 자폐증을 초래한다.** 이런 자폐증적인 욕망들은 "그 향유가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 향유와 동시에 "향유의 대상이나 매체에 자신을 예속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자본 자체 때문에 자본을 사랑한다면, 자본의 속성상,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자본에 예속시킬 것이다. 이는 **'억압 때문에 억압을 사랑하는 일'**이며 자본에의 예속 때문에 자본을 사랑하는 일이다. 즉 **이들의 사랑은 "예속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근대 초입에 스피노자는 자기 시대 네덜란드 정치 상황에서 이렇게 예속으로의 귀결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예속시키는 것에 대한 이해관심을 과감하게 단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예속되기를 욕구하는 대중들의 괴기한 욕망을 철학적 정신을 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포착했다. **"왜 인간은 예속당하기를 욕망하는가? 마치 예속이 자유이기라도 하듯이! 왜 인간은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감하고도 자신들에게 더 나쁜 것을 추구하는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가학에 대한 피학증, 즉 사도-마조키즘으로 진단된다. (임상 철학자 신승철, 『가타리의 분열분석과 미시정치』 중에서 편집 인용함)

제시문(라-3) 신체는 이전보다 더 큰 행위 능력을 가지도록 이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행위능력을 가지도록 이행할 수도 있다. 스피노자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이행을 슬픔의 감응이라고 부르며 반대로 신체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이행을 기쁨의 감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이러한 서로 다

른 두 방향의 이행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신체 수준의 결과이다.

따라서 공포는 우리의 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 정서의 한 상태이므로 슬픔의 감응에 속한다. 어떤 공동체가 공포를 통해 구성되거나 유지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슬픔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대로 한 공동체가 기쁨의 감응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위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코뮌은 기쁨 감응의 공동체이며, 코뮌의 구성적 활동은 기쁨 감응의 구성활동이다. (가령 취업불안과 '생존경쟁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지되는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문화가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커뮤니티 문화는 일종의 슬픔의 공동체일 것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본성상 기쁨을 사랑하고 슬픔을 증오한다. 그렇다면 본성상 아무도 자신이 슬픔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욕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공포에 의해 구성되는 '반코뮌적 경향'을 지니는 것일까? 능동적 구성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인 코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쁨 감응에 따르는 구성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명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손쉽게 제시되는 대답은 무지이다. 기쁨을 원하고 슬픔을 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면, 슬픔의 공동체를 향해 가는 어리석음의 이유는 환상과 혼동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이 정념에 휩싸일 때에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상태에 놓인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념들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성주의의 현대적 버전은 이데올로기론이다.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슬픔의 공동체를 기꺼이 인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지배집단이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허위의식으로 인해 과학적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이들은 무지의 상태에서 슬픔의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욕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슬픈 감응의 공동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범위한 폭로와 과학적 진리에 대한 선전이다.

그러나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문명 속의 불만 (1930)에서 일정 정도의 강제가 있어야만 문명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성적 논거가 그들의 정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강변한 것을 떠올려 보라. 역사적 사례들을 보아도 사실상 과학적 분석과 폭로는 슬픔의 공동체를 향해가는 어리석은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무력했음을 알 수 있다. 파시즘을 옹호하는 대중심리에 대한 라이히(Wilhelm Reich)의 분석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독일의 경제는 급격한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적 상황만으로 보자면 노동자들은 독일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였지만, 정치적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우파정당을 지지하였다. 1928년 고작 80만표를 획득했던 나치당은 1930년 가을에는 640만의 엄청난 지지표를 얻었다. 이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300만표가 노동자의 표였다. 대중들의 지지율은 점점 높아져 1933년에 이르면 지지표가 1700만에 달하게 된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다'라는 구호 아래 낙태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1871년부터 독일에서는 우생학적 이유나 강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원치 않은 임신은 경제적 궁핍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여성들 대다수가 독일공산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1932년 낙태법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그녀들은 낙태법 폐지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톨릭 중앙당과 나치당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치당은 노동자 계급과 여성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정책들을 입안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나치당에 지지표를 던졌을까?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인 흥분과 도취 속에서 나치를 선택했다. 이 점에서 나치시대의 파시즘은 스탈린식의 강제적 전체주의와는 다른 양상의 자발적 대중운동이다. 1930년대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흐름을 이끌어간 것은 강제와 폭력보다는 대중의 정서적 전염력이었다. 그리고 이 전염력은 나치당의 반동성을 합리적으로 폭로하려 한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독일 민중은 자신들의 운동이 파국을 가져올 슬픈 공동체로의 운동임을 어렵듯이

예견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파국보다는 집단적 동조와 도취적 활동에 수반되는 '현재적 즐거움'을 기꺼이 택했다. 그러므로 슬픔의 공동체로의 퇴행을 극복하고 기쁨의 공동체로의 이행을 꿈꾸는 정치학은 현실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야말로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주지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시인 진은영, 『감응과 유머의 정치학』 중에서 편집 인용함)

질문2.

소나무 아카데미는 "서로를 교육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 맺기"를 교육의 목표로 추구합니다. 즉, 공익에 관한 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옆사람과 직접 공익적[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우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방식으로 공익을 실천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호혜적으로 관계 맺는 문화'를 한국사회에 확산시켜 사회적 수준의 공익[共益]을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께서 참여하실 첫 1년의 과정은 다른 원생들과 '호혜적이고 진실한[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아카데미는 이렇듯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교육한다"는 기표는 한편으로 상당히 위험한 측면 역시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내면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억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배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혜적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어보자!"는 식의 구호나 다짐만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부단한 연습과 현명한 학습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기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맥락에서 질문합니다. 지원자께서는 상호 호혜적이고 진실한[인격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추구할 만한 깊고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 지원자가 실제로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문제 또는 한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로 왜 그것이 문제적이거나 한계라고 생각하는지 지원자의 인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논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